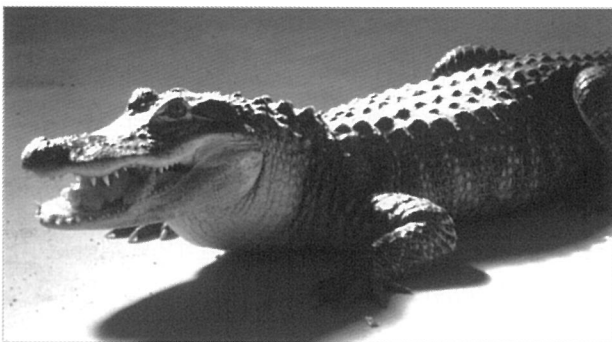


## 친밀한 동물 관람 설명서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 악어가 왜 안 움직여요?

맞아요! 저도 평상시에 움직이는 걸 잘 못 봐요. 마치 박제처럼 보인다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숨 쉬고 살아있는 동물 분명히 맞습니다. 움직이게 하려면 배고플 때 먹이를 주면 됩니다. 그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사납게 달려드니까요.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다가도 정지동작처럼 갑자기 그대로 입을 벌린 채 멈춰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파충류들이 동작을 멈추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네요. 파충류들은 한번 먹으면 며칠을 소화시키면서 보냅니다. 우리 동물원도 1주에 한 번 먹이를 주지요. 그 동안에 먹은 먹이를 몸 정지 상태에서 오직 소화를 위해서 온 몸을 바치는 겁니다.

운동하고 자시고 할 에너지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파충류들은 뇌가 아주 작아요. 그들 뇌는 본능적인 움직임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온혈 동물들은 에너지와 혈류의 20% 이상을 뇌의 활동에 소비합니다. 하지만 파충류는 사냥과 소화 같은 생존 활동에만 쓰지요. 배가 고파야만 먹이를 찾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반면에 온혈동물들은 수시로 먹이를 먹어서 사실 뇌가 배고프지 않도록 해야 하구요. 본능보다는 일단 먹을 게 있으면 먹어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지요. 반면에 파충류들은 배꼽시계가 울려야만 먹이를 먹는 거구요. 꼭 사냥해서 먹어야

할 때 빼놓고, 누가 공격할 때나 추울 때 빼놓곤 왜 움직여야 하는지 자기들의 본능적인 뇌에선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들은 마치 식물과 동물 어느 중간쯤에 걸쳐 있는 듯해요!

### 앵무새는 왜 그렇게 화려해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앵무새가 화려한지 알면서도 그냥 앵무새이니까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요. 앵무새는 높은 나무꼭대기에 사는 새입니다. 그리고 무리로 살고 몸 크기도 대체로 큰 새입니다. 아주 큰 것들은 독수리 만하지요. 그러니 감히 떼로 높은 곳에 사는 큰 그들을 공격할 천적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명도 아주 길지

또 다른 많고 화려한 앵무새 무리와 자기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구는 결코 아니랍니다.

### 물개와 물범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물개, 물범 참 헷갈리고 구별하기 힘들어요. 처음에 동물원 온 사육사들도 관심이 없으면 잘 설명을 못합니다. 둘 다 고래 같은 해양포유류고 수명도 아주 잘하고, 방수 옷 같은 검은 피부나 눈이 크고 얼굴이 둥근 귀여운 인상이 엇비슷해요. 그러니 쉽게 구별이 안 가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물개는 영어로 fur seal(퍼셀) 즉 털이 있는 물범이라고 불려요. 그만큼 물범



에 비해 털이 많이 나있고, 털이 많다는 것은 육지에 있는 시간이 많다는 말도 되지요. 물개는 앞 뒷다리가 수영을 위해 노 모양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뻗어있고 길이가 깁니다.

육지에 올라오면 비록 뒤뚱거리긴 해도 걷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잘 걷습니다. 물개 과에는 여러 종류의 물개, 바다사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범은 고래와 비슷하게 뒷다리가 짧고 완전히 뒤로 확 제껴져서 오로지 수영을 잘 하기위해 꼬리 지느러미처럼 변했습니다. 육지에 상륙은 하지만 뒷다리가 없으니 배로 겨우 기어서 이동할 정도로 육지생활이 불편하구요. 일광욕이나 결혼, 새끼 정도를 키우려고 바위섬 같은 작은 육지로 올라옵니다. 이들을 영어로 seal(셀)이라 부르고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해 있으며 바로 '네이비셀'이라 부르는 용맹한 해병대의 상징 동물이기도 합니다. 아참! 그리고 물범은 귀 바퀴가 따로 없이 여단히는 구멍만 나있고 물개는 귀 바퀴가 조금 밖으로 나와 있어 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구별하기 어려우시다구요! 휴~ fin~



요. 수명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없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사람들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무엇보다 시작하나요? 차 사고, 집 사고, 짝을 찾고, 자기를 꾸미려 하지요. 맞습니다! 앵무새들 역시 그리고 싶지만 새들은 집도 차도 필요 없으니 짝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꾸미는데 최선을 다하겠지요. 아프리카 회색앵무새를 보면 무채색입니다. 아마 앵무새들의 조상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점점 멧에 눈을 뜨게 되고 화려한 것이 좋게 보이고 자연스레 돌연변이로 화려해진 개체들의 자손이 유전이 되다가 오늘날의 꽃처럼 화려한 앵무새가 되었겠지요. 그 화려함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만 원래는 자기들끼리 서로 멧을 과시하고,